



통권 58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6. 8. 19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지난 8월 8일부터 3일 동안 명동성당에서는
민가협·민변 등 14개 단체의 주최로 '96 양심수석방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시인, 소설가, 영화감독, 만화가, 대중가수 등 문화예술인과 종교인, 법조인,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양심수의 석방을 앞당기고자 뜻을 모은 이 행사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6년 선언'을 시작으로
'하루감옥체험', 푸른수위의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미술인이 함께한 '양심수 희망그리기',
대중가수들의 자선 콘서트 '아빠, 보고싶어요'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마지막날인 8월 10일, 양심수의 가족들이 푸른수위를 입고
포승줄로 묶인채 행진을 하려는 모습.

민족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평화와 대단결을

해방과 분단 그 영광과 오욕 50년을 보내고 또 한해를 더하게 되었다. 일제에 이은 또 다른 외세는 해방된 남의 땅에 제멋대로 금을 그었고 저들의 전후 세계체제 전략에 따라 수천년을 한겨레로 살아온 우리를 양쪽으로 갈라 맹목적인 맞서 겨루길 강제하였다. 해방조국에서 그 오랜 치욕의 굴레를 벗겨내고 떳떳한 주인으로 하나되어 평화롭게 살려한 겨레의 꿈은 이처럼 강대국의 세력다툼에 휘말려 끝내는 전혀 원치 않았던 동족상잔의 참상마저 가져야 했다. 제국주의전쟁 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자주와 해방, 통일과 독립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지역과 다자간에 민족과 국가 이익을 위하여 평화와 협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만 아직도 낡은 냉전논리와 대결구도만을 만들며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 해방 51돌을 맞는 마음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8·15 해방은 분명 그 어느 것에 앞서는 민족적 큰 명절이다.

군국주의 일제를 패망시키고 식민지 질곡에서 조국해방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며, 빼앗긴 주권과 국토를 되찾기 위해 계급·계층과 신앙·사상 차이를 넘어 민족적 단합과 빛나는 투쟁의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며, 바로 그러한 투혼에 바탕하여 두번다시 외세(친청, 친로, 친미, 친일)에 기대 민족분열로 나라를 통치로 잃는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민족적 과제를 가슴깊이 떠안았기 때문이었다.

8·15는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민족해방이었음과 함께 파쇼와 착취관계에서의 시민적·민중적 해방이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서의 평등’을 찾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과 지배도, 어떠한 억압제도와 고통도 사라졌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의 분단사는 자주권도 인권의 보편가치도 잃게 되었다. 외세앞에 단결을 하지 못했고 일제의 식민지 유제와 탄압구도 청산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지배의 앞잡이였던 반민족 행위자들은 새로운 외세의 비호아래 지배자로 군림하였고 오히려 자주·민주·통일 세력은 거둬들인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해방 51돌을 맞는 우리는 8·15 해방의 참 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

신사참배에 연연하고, 정신대 만행을 변명하며, 신 미일 안보조약과 방위권 확대에 집착하는, 그리고 독도를 제땅이라고 억지부리는 일본을, 북녘을 상대로 한 공조를 취하고 우방으로 감싸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해방된 자주독립의 절대 절명의 명제대로, 또한 7·4 남북공동성명과 2·19 남북합의서 정신에 따라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준비하며 일본의 침략근성에 남북이 공조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8·15 정신의 또 하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모든 억압, 착취 구도에서의 해방이었다. 누구든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 차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박해 받아서는 안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체제와 이념 대

치를 빙자한 다른 정치적 의견에 대해, 현대 문명국가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체포, 고문, 장기형, 사법살인이 자행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으로 학생, 노동자, 통일인사들이 줄이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다. 통일조국만을 염원하며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 하여 수십년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사회구조 모순을 지적했던 젊은 시인이 무기형을 받고 그 창의의 날개를 펴지 못한 채 묶여 있다.

30년 군사 정권을 끝장내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문제, 악법철폐, 양심수 석방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대단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공언해 왔을 뿐 아니라 이른바 문민정권 출범 후 ‘어떠한 우방보다 민족 이익이 앞선다’고 선언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민정권이 들어선 뒤 3년반만에 무려 1980여 양심수가 구속되었다(국가보안법 980여명).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남아있는 양심수는 250여명이고 대부분 최근에 구속되어 아직 조사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구속을 시키면서도 풀려나지 않은 수가 적은 것은 양심수였기에 사면(?)석방 되어서가 아니다. 대부분 구속시킬 사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마구잡이 잡아들인 것을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연합 사무처장 박충렬씨(간첩혐의 구속)를 비롯, 95년도에 5건, 96년 들어서도 전남대생 신희주씨, 농민동맹(협의없음), 민정련 광주지부 등에서 국가보안법 7조 항목들에 무죄선고를 한 것이 그 예들이다.

문민정부에서는 양심수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39년째 독방에 갇혀있는 우용각 노인을 비롯한 400여명의 양심수가 이 불별 점통속에 인간의 한계 능력에 매달려 있다. 윤수갑 노인, 강희남 목사 등 75세가 넘는 분들만도 10여명이 넘는다.

민가협을 비롯한 14개 인권, 종교, 시민단체들은 40개 단체의 후원으로 이같은 양심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끝내는 모든 양심수를 구출하기 위해 ‘하루감옥 체험’, ‘묶인 이들의 행진’, ‘시민가요제’, 양심수가족의 이품과 희망을 나누는 밤 ‘아빠가 보고싶어요’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815 민족해방절을 앞둔 8월8일 - 10일까지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교수, 변호사, 종교인, 보건의료인, 문학예술인, 사회운동 지도급인사 1996인의 양심수 전원석방 결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민족에게 평화와 대단결을’

‘고통받는 이에게 자유와 해방을’

갈라진 민족의 가슴위로 날아오른 '통일 희망새'

편집부

희망에 대하여

오늘날 세대간의 단절은 심각한 문제라고들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30여년쯤의 나이 차이에서 오던 거리감을 일컫던 '세대'란 말은 요즘 들어 선후배 사이에서, 같은 동년배 사이에서도 서로의 거리감을 일컫는 말로 심심찮게 이야기 되고 있다. 어쩌보면 그만큼 이 사회의 물질적, 사회문화적 체험과 변화속도가 그만큼 빨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겠다.

하지만 지난날 역사라던가 계승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였던 그 말은, 오늘날에는 단절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당혹스러운 의미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 여기에 상품판매에만 골몰하는 자본주의는 '신세대'니 'X세대'니 하는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장삿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은연중에 우리는 사회운동에 대한 약간의 패배감과 피로함에 젖은 걱정스럽고 지친 눈길로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게도 되었던 것이다.

민주와 혜정이는 각각 스물세살, 스물한살로 신촌이나 명동 입구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신세대' 대학생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는 단절이나 차이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희망을 본다. 단지 한총련 대표이자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대표로서 이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들의 '활동'에서만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내면세계, 말과 글, 웃음과 눈물에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이어갈 더 큰 희망을 본다.

착하고 환한 어머니의 딸들, 이땅의 딸들

혜정이는 카톨릭대학 성심교정 회계학과 94학번이다. 세자매 중의 둘째딸인 혜정이를 두고 어머니 김향자 님(49세)은 언제나 "됐어요!"인 아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 "옷을 사주려 해도 '됐어요!', 용돈을 좀 주려해도 '됐어요!'", 피곤하니 차를 태워주겠다고 해도 '됐어요!'예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인 아이죠"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혜정이는 신림동 산꼭대기 철거민촌을 찾아가 공부방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한총련 대표로서 방북하기까지 꼬박 8개월, 혜정이는 한번도 그 언덕을 오르내리는 산길을 빠뜨려 본 적이 없었다. '혜정이 선생님'에 대한 아이들과 동네주민들의 애정도 지극한 것이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혜정이를 후원하는 행사를 열기도 하였고 꼬마들은 뽀빠뽀뽀한 글씨로 곧잘 편지도 보내온다.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되요?"라고. 어머니 역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 때문에 못본 것도 많이 보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갈아입을 옷도, 쓸 돈도 없이 청바지에 농구화 차림 그대로 그 먼길을 떠난 것이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시기만 하다.

민주는 인천대학 건축학과 92학번이다. 2남2녀 중의 셋째인 민주 이야기를 하시며 어머니 이종옥 님(53세)은 목소리가 어느새 축축이 젖어드신다. "착하고, 아이들 중에서 제일 엄마랑

잘맞고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지요.” 어머니께서는 월남해오신 피난민으로 전쟁과 분단에 대해 무척 끔찍스럽고 고생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민주는 “이젠 서로 미워하면 안되요. 미워하는 것으론 통일이 안되요. 그 시절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다같이 어떻게 잘살것인가 생각해야지요”라고 간곡히 말한다고 한다.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딸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약 50일 간의 방북에서 하루하루의 일정이 너무 고되었던 것이 더 마음에 걸리시나 보다. “여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라 얼마나 다녔으면 돌아올 무렵엔 영 얼굴이 안되었더라구요.”

눈물로 꼬박 새운 하룻밤

“1995년 8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은 제게 한총련 대표로서의 방북제안은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심 이전에 제가 하룻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렇게 물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민족이 분단되었다는 것, 분단조국에서 태어나 분단된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살고있다는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정이의 최후진술 중에서)

199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가져다주는 의미의 50년인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슬픔의 50년이기도 했다. 한총련은 그해에 민족의 정당한 만남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결의로 이북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총련 대표이자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대표자격으로 두 사람이 방북을 결행하게 된 것이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식은 있으나 오랫동안 철조망이 가로놓인 또 하나의 조국땅을 실제로 밟기란 그들에게라고 쉬운 일

은 아니었다. 스스로의 자격과 준비에 대한 진지한 고민, 눈앞을 가로막는 부모님의 얼굴 등을 떠올리며 꼬박 하룻밤을 새워야만 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결국 두 사람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것은 단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의세에 의해 분단은 되었으나 통일은 기어코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할것다는 조선민족의 피를 가진 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두 시간 남짓한 거리를 두고서 지구상의 절반을 돌아가는 길, 프랑스와 독일을 에돌아 1995년 8월 14일, 또 하나의 조국 땅을 밟게 된다.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타리에서의 하룻밤은 나에게 아무런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저 지나다니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조금 낯선 거리들... 그것 뿐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평양 사람들을 보았다. 50년 이별했지만 말이 통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난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른다.”

50일 간의 방북-어머니들의 타들어가는 가슴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도 민주와 혜정이의 가슴 한켠을 무겁게한 건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온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판문점을 넘어 내려온 이후 안기부에서의 첫 면회때 그들은 죄스러운 마음을 먼저 표현하였다.

어느날 갑자기 뉴스에서 딸의 얼굴이 나오고, 학교와 언론사, 경찰들로부터 불이나게 연락이 오던 그때부터 어머니들은 한시도 마음편할 날이 없었다. “이제 우리집 식구는 다 끝이났구나 생각했지요. 도대체 내딸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그래도 민가협 어머니들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동네골목을 나서기가 착잡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들 따듯이 위로해 주더군요

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으셨는지 민주 어머니의 말씀이 갑자기 빨라지신다. “그래도 어찌겠어요. 나라도 그애를 이해해야지, 나랑 다르다고 자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식구들과 함께. 뒷줄 왼쪽이 이해정어머니 김향자님.

혜정이네 부모님들은 혜정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하루전 임진각 너머 자유의 다리까지 가셨다. “우리가 갔던 그 코스 그대로 넘어왔던 걸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그 엄청난 길을 걸어오는데 바로 앞에 두고서도 함께올 수 없다니...” 혜정이 어머니는 끝내 목이 메으신다. 혜정이 아버님은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다. “네가 북쪽으로 가기 위하여 김포공항을 떠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이 아빠의 심정을 알기나 할지,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같은 너무나도 황당한 심정이었던다... 그래도 네가 너무나도 보고싶은 마음에 얼마나 같이 네가 있을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 민통선 자유의 마을을 방문하였으나 그곳에서도 너를 볼 수 없었을 때의 이 부모의 심정... 너를 안기 부에서 처음 만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다. 너를 다시 부모 곁에 보내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어머니를 뵈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혜

정과 민주 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던 다음 날이었다.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3년형의 원심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기대는 안한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결과를 놓고보니 너무나 맥이 풀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어머니들의 표정이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한다. 이들 ‘통일 희망세’가 마음껏 나래를 펴고 날아오를 그날은 언제 일까.



▲ 이해정

민주와 혜정의 ‘희망찾기’

50년 동안이나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까.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방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따라서 비현실적이면서도 어찌면 비평화적일지도 모를 방식의 이야기이다. 아니면 교과서의 추상적 내용에나 합당할 수준의 글들이다. 민주는 딸을 이해해 보겠다는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 그런 의지가 없지 않았던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런 반성이 깊어지고 있을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생각하는 바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너는 내딸이다, 사랑하는 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제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바로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어머니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는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바리 갈라진 땅에 사는 남과 북,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란걸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이 부질없는 대립과 반목을 거두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열려진 마음으로 이제는 더불어 도아가며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할때라는 것이 저희가 그토록 바래온 진정한 '참통일'이 아닌가 싶어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꺾고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하나됨. 어머니와 제가 하나가 되는 것도 분명 그런 것이겠지요? 부모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저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에 같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광장한 희망을 느낍니다. 두분의 마음처럼 남과 북의 닫혀진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될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제 가슴 가득히 차오르고 있는걸 느껴요."

혜정이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까. 감옥 안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혜정이는 희망을 찾는다. 혜정이는 이러한 마음을 범정의 최후진술에서 차분히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남쪽의 사람들 또한 눈빛이 그렇게 빛나더라 말입니다. 추석에 조상의 묘앞에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더라고 하니 '아-하, 북쪽 사람들도 절을 하는구나' 하며 눈을 빛냈고, 그곳에서도 자유연애를 하고 저녁 먹고 대동강변에 나가보면 쌍쌍이 앉아있는 연인들도 눈에 띈다고 했더니 '우-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의 거리에도 사람이 많으냐는 질문에 '우리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일이 끝나 는 시간에 케드전차문에 매달려 가야할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대답하자 '그렇겠지, 거기 도 다같이 우리땅이고, 거기 도 사람사는 데니까' 라며 수긍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싶어 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잘못 알고 살아왔는지를...북녘동포들의 소식

을 들은 남녘의 민중들은 그래서 더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 정민주

다시, 희망에 대하여

먼길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면 쿵쿵 두드러 치던 피아노가 그림자는 민주나, 유난히도 편지에 감탄사가 많은 발랄한 혜정이나, 다들 이 십대의 문턱을 갓넘은 싱그러운 이땅의 젊은

이들이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모음을 읽어갈수록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건 단순한 희망을 넘어선 큰 감동, 믿음이란 생각이 들었다.

살아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는 민주는 "...다행히도 인생을 고민하던 시기에 오르고 싶은, 꼭 올라야한다고 믿어지는 산을 만났고, 함께 오르며 그 어려움과 마침내 오르고 나서의 기쁨을 나눈 이들을 만났고... 한 발자국씩 내딛을수록 우리가 모르는 산의 아름다움을 톨라 가슴으로 같이 느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혜정이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소설 「고등어」를 읽고난 감상을 적은 글이다.

"90년대를 살면서 '고등어'를 읽던 날, 80년대 의 선배들은 어찌하여 내 조국에서 그토록 가슴 아프고 슬펐을까? 그분들은~ 너무 회의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애냐면...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사람 이상은 있다고 감히 이런 말을 쓰는 청년이 여기 있기에.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럽고 적스러운 내가 되고 싶지는 않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대의 지성, 리영희 님

편집부



질 문 선생님께서는 소외되고 망각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다고 최근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인식방법과 사고의 대상을 전 인류애에 근거를 둔 대 전환적 가치추구, 즉 포괄적 휴머니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문민’ ‘세계화’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구시대의 낡은 사고와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리영희 시대가 변하면 대응 논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나 얘기하듯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의 기능과 역할을 해 왔던 사회주의가 제도으로써 사라진 까닭에 자본주의는 경쟁자를 불행하게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이제는 그야말로 극단으로 자체적인 구조적 질병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화라는 것의 하나의 형태이기도 하고, 물질생산 위주로 인간을 물질로 환원시키는 상업주의의 방식이기도 하고, 무한정의 생명파괴이기도 하고,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한심스런 인성의 파괴 또한 그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인간과 사회의 ‘물신화’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
 “인간” 위주의 마르크스사상과 철학,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동양의 도학,
 노·장 사상과 철학이 융합, 일체화되는 새로운 인류의 철학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주의의 내에 사회주의나 맑스사상 혹은 맑스적 윤리를 대신하는 어떤 형태의 안티테제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생명적인 자본주의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가듯 가고,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속에 탄 사람들이 ‘이젠 이 자본주의에 의해 우리가 다 죽게됐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체제 내적 변혁을 도모해 나가는 사상이 생겨 나게 될 것입니다. 그 현상이 현재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통일 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소비자보호 운동 등 이른바 다양한 시민운동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인간과 사회의 ‘물신화’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철학과 사상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자연을 수탈하는 물질 생산 위주의 자본주의와 과학, 기술숭배 사상과 이론에, “인간” 위주의 마르크스사상과 철학,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평화와 행복을 찾는 동양의 도학(道學), 노·장(老子, 莊子) 사상과 철학이 융합, 일체화되는 새로운 인류의 철학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민 개개인이서 출발하는 단위마다의 묶여진 세력들이 단체로써 제도에 대항해 나가는 ‘체제내적 반

체제’의 치열한 운동이 21세기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이 큰 변혁을 가져오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게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와 인간이 치루어야 할 많은 인간파괴와 희생을 생각하면 참 가슴아픈 일이지요.

질 문 우리민족에게는 시민운동과는 조금 차이가 다른 민족민주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또 다른 외세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단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의 민족민주운동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리영희 자본주의와는 다른 별개의 차원에서 물론 민족마다 개별적인 역사적 배경과 역사성을 가지는 민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민족의 분단도 크게 말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의 소산이기는 했지만, 체제 내적 측면과는 별도로 이것은 분단의 상황과 외세와 관련된 민족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북한을 궁지와 파괴로 몰아가는 현재의 ‘사실상’의 흡수통일전략은 민족의 불행이며 실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동독의 경우

"...자유로운 사상과 토론에 의해서
극좌이건 극우이건 혹은 어떤 사상이든,
토론에 의해 보다 나은 것을 택해야 인간이 발전, 진보할 수 있습니다."

와는 다르니까요.

질 문 국가보안법에 관해 여쭙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9번 연행, 5번 구치소
수감, 3번 재판을 받고 그중 두 번 옥
고를 치루셨습니다. 처음엔 반공법에
의한 것이었고 대부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였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400여명이 구속되었
고, 이른바 문민정권이 들어선 뒤 구
속된 2000여명의 시국사범중 약50%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었습니다.
아직도 갇혀있는 384(7월 21일 현재)
명의 양심수 가운데 국보법 적용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보법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셨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리영희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줄을 알고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한 이야
기가 있습니다. 공안검사들과 친한 사람의
얘기가, 그 공안 검사들이 술마실 때는 '좌익
의 분쇄를 위하여' 하며 건배를 한다고 합디
다. 설마 유치하게 그러겠냐, 하고 웃고 말았
지만...

남북관계가 풀려져 가는 기미가 보일수록 지
난 오십년동안 오로지 극우 반공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들과 또 그것으로 편안하게 지배
자의 입장을 누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

과 의식이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부정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
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박정희 유신시대
상태에서 혹은 전두환 시절에서 역사의 전진
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내의 차원에서 사상의 자유와 그
사상을 의사표시의 자유에 의해서 누구나 표
현 할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양
심으로서 자기에게 충실한 생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국내적인 인간다운 사회라는 것은 도
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6.25때 군대에서 그런 서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할수록 상대에 대해 더 알
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미군인장교들이 읽고
있는 맑스서적을 접할 수 있었지요. 미국이
란 나라와 제도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
지고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이라는 국가 기초가 흔들리지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자유로운 사상과 토론에 의해서,
극좌이건 극우이건 혹은 어떤 사상이든, 토
론에 의해 보다 나은 것을 택해야 인간이 발
전, 진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주의 사회에서 정치
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
교적 차원에서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속에서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억압은 그 생명

“...구체적인 한 인간의 생명이 병들어서 육체적, 정신적 학대속에서 몇십년을 보내야만 징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체계, 국가 이념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문명적인 행위입니다.”

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사상, 양심적 억압이라는 것은 반인간, 인간파괴, 생명파괴라고 까지 봅니다.

물론 짧은 시기, 어떤 집단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자위를 위한 정당한 전쟁의 시기에는 그 전쟁 목표를 위해서 민주 시민들이 다 동의 하는 바탕에서 일시적인 자유의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에서, 또 앞으로 풀려 나가는 한반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질 문 선생님께서는 구체적 인간이 구체적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이란 말씀 속에서 장기복역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우용각 씨는 39년째 감옥에 갇혀있고 윤용기 씨는 38년을, 그 밖에 35년째 복역중인 장기수가 8분이고 30년 이상 갇혀있는 분이 17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수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반인간적, 반인류적인 처사라 하겠습니다.

만델라가 28년을 살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떠들썩하게 정부에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땅에 사

는 제 민족에게는 그렇게까지 가혹해야 하는지. 장기수와 양심수 문제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리영희 세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법의 정신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법의 목적과 정신이라는 것이, 법에 대한 도전이거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 할 때, 한정적인 생명연한을 가지는 인간에게, 적어도 그 인간이 폐인이 될 때까지 그 인간을 가두어야만 징벌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징벌이라는 의미에서, 보복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세계유래가 없는 잔인가혹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한 인간의 생명이 병들어서 육체적, 정신적 학대속에서 몇십년을 보내야만 징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률체계, 국가 이념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문명적인 행위입니다.

거의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라틴 아메리카도 있었지만 우리처럼 혹독하지 않았고, 대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보다 월등 민주화 되었습니다. 남한에 유일한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체질, 말하자면 국가의 정치생리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낡은 냉전체제와 광적 반공주의의 청산되지 않은 유물이지요.

세번째로 정권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7년

“...행동으로서 그 체제를 목적으로 해서

타도하기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거나 개인의 이념으로 가지거나 자유이어야 합니다.

두개골 속에서 나오지 않은 ‘생각’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전 한겨레신문 논단에서 첫 일월 일일, 신년의 글로 제안한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던 바로 그해 입니다. 남북한의 화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표시로서 간첩과 정치범을 상호석방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한에도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보낸 간첩들도 많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교환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타국에 잡혀 있는 자기나라 간첩들을 심지어 돈으로까지 교섭해 받아오는 일까지 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못할게 뭐 있냐는 겁니다. 역사적인 민족간의 화해와 신뢰감의 수립을 지향한다고 대통령마다 소리높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증을 해 보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 우리쪽에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를 가려 포로 교환 형식으로 사상적 확신범, 장기수를 상호교환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행동으로서 그 체제를 목적으로 해서 타도하기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거나 개인의 이념으로 가지거나 자유이어야 합니다. 두개골 속에서 나오지 않은 ‘생각’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야만입니다.

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으로서의 징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 국가가 상호간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법체제와 같은 잔인혹독한 반

문명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징벌에 대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땅의 잔학무도한 법체제속에 장기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민족만이 갖고 있는 분단이란 특수한 조건에서 장기복역 양심수가 있게된 게 아닐까요?

리영희 분단때문에 그렇다,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해결능력이 없는 분단이라는 상황에 떠맡기고, 그러므로 그 행위는 다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상당히 수정을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분단 되었다고 해도 개별적인 남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간첩이나 국제법상의 정규 적대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두 국가 마찬가지 입니다. 분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비가벌적이라는 논리에 액면 그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국가가 정하는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벌이 어디까지여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위자는 그 벌을 각오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 문 8·1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단 50년을 넘기지 말자던 오래전 부터의 구호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 해가

“...북한과 함께,

북한이 변하는 것만큼 남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가치가 있는 통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국가는
어떤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인지 선 생
님께서 통일문제에 대해 한 말씀해 주
십시오.

리영희 지혜가 없어서 통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니 뭐
니 하는 그런 말들은 정권차원에서나 학자
개인차원에서나 단체나 연구소나 정부 통일
원이거나 할 것없이 거대한 내용들을 발표했
습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남북체제를 서
로 수정하여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합
니다만, 나는 북한이 변화해야 하는 것만큼
남한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어서 1993년 국가통계에 의하면 남한에서 사
소한 사건들과 민법상의 분쟁들을 제외하고
강간, 강도, 사기, 횡령, 유괴, 살인등으로 형
법상 입건된 사건만 1백 2십 4만건 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서 발생하는 범죄의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발생한 범죄중 19.5%만이 입
건되었습니다. 즉 입건되지 않은 80.5%는 아
예 통계에 안들어 간 것입니다. 이것까지 포
함하면 당연히 범죄발생수는 5배가 될테니
까 천만건 가까운 범죄가 한해에 발생한 것
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네사람 가운
데 하나가 '주요(큰) 범죄행위거나 범죄 카
테고리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카톨릭 교회에서 8·15 를
맞아, 양케이트와 면접을 통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했어요. 상당한
수가 '남한이 이런 사회인 줄 알았으면 안 나
왔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을 읽었습니
다.

그런데 이 한국이, 남한은 종교가 있어서, 부
처님의 자비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선남
선녀들이 옳은 일만 한다고 착각을 하고, 북
한에 종교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자비와 하
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종교도 없이 사는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
다'는 종교운동을 하는 것이예요. 그래 목사
도 북으로 가고 스님도 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선남 선녀고, 북
한은 아주 지옥에 갈 악인들의 집단이다' 는
생각으로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입니
까?

그런데 남한의 실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남
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일을 논하는 사람
들이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것이
며, 북한이 어디까지 변화해야하느냐. 또 북
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될 것이라
고 논하고 있을때, 나는 북한과 함께, 북한이
변하는 것만큼 남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
이 살 가치가 있는 통일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강간을 밤낮으로 걱정해야 하
고, 인간이 이웃을 뺏음을 대상으로만 설정

“...남한의 ‘누리는’ 사람과 계층이 통일을 위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의 약간씩을 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리는 것을 지키고,

게다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의 결과로 누리는 지분을 더욱 늘릴 욕심이나 생각을 한다면
진정으로 민족의 행복을 이룩할 통일은 멀다는 생각입니다.”

하고,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고, 오직 돈
밖에 가치의 기준이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
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생각, 19.
5%만이 범죄화 될 수 있을뿐 나머지 80.9%
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 땀흘리지
않고 부정한 축재를 한 사람이 선망과 존경
의 대상이 되는 사회, 정직과 성실이 웃음꺼
리가 되어 버린 사회. 물신 숭배, 외래숭배,
외래풍이 아니면 못사는, 통틀어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의식이 전부 병들어 버린 사회라
고 봅니다.

이런 남한을 그대로 놓은 채 북한을 변화시
켜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나 민간
단체의 통일의식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생
각합니다. 50년 분단에서 어느쪽 인간과 사
회가 더 ‘이질화’ 되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질 문 이미 남북은 7.4 공동성명과 남북합의
서를 발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당장
사회통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통일을
위한 준비로써 평화정착과 민족대단결
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리영희 남한이 북한의 4배나 되는 해마다의 군사비
를 줄여 가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기감
을 덜어주어 북한이 가난한 국가자원을 낭비
적인 군사비에서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
한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5
~ 10년간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북한의 경
제, 사회가 숨을 돌리게 되고, 사회개혁과 개

방 및 체제의 수정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즉, 남한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체 변화한다는 전제하
에서 북한의 그같은 변화를 유도하면 이른바
‘접근을 통한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그 뒤
에 ‘통일’로의 단계로 옮겨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북한만이 변하는 조건에서의 통합,
또는 통일(사실상의 일방적 “병합통일”)을
추구하는 남한의 기득권, 집권, 지배적 개인
과 계층 및 집단이 그런 철학을 용인하겠습
니까? 나는 좀 비관적입니다. 그럴수록 모두
가 그 방향으로의 의식화와 운동을 계속해야
겠지요.

요약하면 남한의 ‘누리는’ 사람과 계층이 통
일을 위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의 약간씩을
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누리는 것을
지키고, 게다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의 결
과로 누리는 지분을 더욱 늘릴 욕심이나 생
각을 한다면 진정으로 민족의 행복을 이룩할
통일은 멀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편집자주: 해방 51돌을 맞아 통일문제, 국가보안법
과 양심수 문제에 대해 「전환시대의 논리」, 「새
좌우의 날개로 난다」 등 많은 책을 내고 옥고까지
치루신 리영희 님과의 대화를 실습니다.

잃어버린 아버를 찾아서

윤창호(31세, 89년 동의대사건으로 구속, 95년 8월 15일 석방)

서울행 무궁화 열차 안...

어제 마신 술이 속을 시끄럽게 하기에 잠을 청해 보았다. 그러나 여행 떠나는 청춘 남녀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옆사람의 코고는 소리가 잠을 설치게 한다.



▲ 양심수석방을 위한 행진.

그러다 광주옥에서 뵈

박동운(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무기형) 선생님이 애절한 가족사를 얘기해 주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꿈과 현실이 뒤범벅되어 참으로 비몽사몽간에 서울에 도착했다. 장자가 그랬던가?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고..... 허나 내가 가고 있는 곳은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던가? 차라리 꿈이었으면 싶은 현실이 우리 양심수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민가협 어머니들의 큰 외침이 이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내 이야길 좀 해야겠다. 작년 8.15 특사로 많은 양심수들을 감방에 남겨 두고 나온 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동지들이 옥담안에 갇혀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무언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민가협에서 일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인데..... 이

거, 이거.....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나보고 '하루감옥'의 교도관을 하라는 것이다. 참엔 농담인 줄로만 알았는데 즉 주위를 살펴보니 장난이 아닌 것이다. 그레 밤새 술 한잔 얻어먹고 교도관을 하기로 하고 3

일간 내 본성과는 정반대의(이건 정말 사실이 다!) '악질' 교도관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럼 이제 '명동성당에서 3일'을 시간대별로 쫓아가 보자.

첫날인 8월 8일, 캠페인 선포식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1996인 선언'을 시작으로 3일간 행사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첫날부터 경찰은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우리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선언문 낭독이 끝나고서 어머니들과 사회 각계인사 등 100여명이 자신들의 몸에 직접 푸른 수의를 걸치고 포승줄로 뽕뽕 묶인 채 명동성당 주위를 행진하는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이 열렸다. 일렬로 죽 늘어선 푸른 수의들의 행렬,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리움으로만 다가오는 양심수들의 사진이 이 나라와 시민들에게 무언의 외침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수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의 너무나도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음조차도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백골단과 방패로 화답하였다. 분명히 사전 신고를 한 합법집회에 대해 입고 있는 수의와 포승줄



▲ 0.75평 모형감옥.

이 시위도구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행진대오를 가로막은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시위하는 사람이 반팔티를 입든, 배꼽티를 입든 그것이 무에 상관이란 말인가? 그날 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듯 하더니 전경과 백골단이 가로막은 그 즈음에는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뽕뽕 뭉인 몸으로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양심수들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빗속에서 오열하고 있는 가족들의 처연한 모습, 그리고 이장호 감독을 비롯한 양심수의 자유를 염원하는 여러 인사들의 비장한 모습은 아마 모든 양심수들이 자유로울 그날까지 내 가슴에 깊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가협 어머니들이 누구시던가? 10년 성상의 세월을 군사독재의 군화발과 폭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 나라 민주역사를 만들어 오신 바로 그 분들이 아니던가? 되값아주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행진대오는 성당으로 돌아와 모형감옥 주위를 돌며 분노를 삼키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날 행사인 '하루감옥체험' 행사와 147회 목요집회를 계속 진행시켜 나갔다. 물론 집시법을 위반(!)한 중부서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당연히 진행하였고...

여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하루감옥 체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보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두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3일간 계속되었다. 이장호 감독, 천정배 국회의원,

이양원 변호사, 안도현 시인, 김영현 소설가, 황상의 교수, 최은식 신부 등 각계인사들이 이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분들은 0.75평 모형감옥에서

입방식, 배식 등 교도소의 실제상황을 감당해야 했는데 포승줄은 기본이고 담배피다 걸린 안도현 시인은 간수들에게 걸려서 '비너뽑기'까지 당했다. 이유도 모르고 문짝 찬 이양원 변호사도 묶였고... 이를 본 어머니들은 실제 당신들이 교도소 싸움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시는지 순간 우리를 진짜 교도관으로 착각해 무섭게(?) 대응해 오셨다.

그렇지만 어찌 '하루감옥 체험'으로 양심수들의 옥담 안에서의 삶을 전부 알 수 있으랴? '징역담벼락이 높다'는 말을 읊조릴 때의 무너져내리고 막혀버리는 가슴들... 이성의 논리보다 힘의 논리만이 전면적으로 지배되기에 하루하루를 긴장하며 보내야만 하는 옥생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살며 외로움을 견뎌가는 그 잔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좌절을 던고 일어서는 강철같은 모습들...

하지만 '하루감옥'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양심수들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자락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이던가? 아마 희망은 이런 분들이 보내주신 마음 한자락 한 자락이 모여 영글어가는 것이리라... 첫날은 우리 어머니들이 93년 9월부터 시작하여 4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오신 목요집회를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둘째날 아침이 밝아왔다. 이날은 미술인들과 양심수 자녀들이 함께 하는 '양심수 희망그리기' 행사가 열렸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글을 써 주셨고 광주에서 올라오신 홍성담 화백은 옥에



◀ 제 3회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간혀있
는 양
심수가
비록
몸은

간헐적이 되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맑은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형상화한 걸개그림을 시민들과 함께 그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악동이’ 이희재화백, ‘둘리아빠’ 김수정화백 등 많은 미술인들이 시민들의 커리케처를 그려주며 펜 싸인회를 하면서 양심수 석방을 함께 외쳐 주셨다. 그러나 이날 행사의 중심은 역시 아이들 자신이었다. 옥에 갇힌 아빠 얼굴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한 구석 아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리라. 이 아이들의 눈에 드리워진 그늘을 없애주고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다. 이날 저녁에는 너무나도 뜻깊은 행사 하나가 열렸다. 이름하여 “부활, 제3회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사실 이 행사가 시작된 것은 88년이였다. 87년 6월 항쟁으로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문을 나설 수 있었던 걸 우린 기억한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수 없는 세상’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88년, 89년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대학로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 시민가요제’가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의 기성가수 뽐치는 실력을 가지고 무대에 올랐는데 결혼한 이후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 여기서 마음을 다졌으면 하는 기대로 출마한 새덕이 영예의 대상을 탔다. 아마도 어머님들이 현재 당신들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 분께로 간 것만 같았다.

8월 10일, 마지막 날... 이날 우리는 정말 많

은 눈물을 서울 하늘에다 뿌렸다.

‘하루감옥’에 수감중인 양심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다시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로 묶인채 모형감옥과 명동성당 주변을 행진했다. 맨앞에 서신 어머니들은 푸른 옷과 포승줄에 묶여 설새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옥에 갇힌 자식을 대신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간혀있는 아들 딸들과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었을까. 포승줄을 묶는 나조차도 무어라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이 눈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도무지 어머니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루감옥’ 출소식. 가족들의 염원을 담아 어머니들의 함성, 주위 남녀노소 모두의 함성으로 옥문을 열었다. 그렇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 하나로 뭉쳐지면 반드시 옥에 갇힌 자식과 남편,아빠의 손을 세상 밖에서 맞잡을 수 있는 그 날이 꼭 오리라...

아무래도 3일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지막 행사인 “아빠, 보고싶어요”가 아닐까 싶다.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뻥뻥이 들어선 모습에서 이 행사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기를 충분히 느



▲ “아빠, 보고싶어요”.

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부산 촌놈이 TV에서만 보던 유명인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양심수의 자녀들과 “아빠와 크레파스”를 부른 신해철, 아이들을 잠시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해서 기꺼이 참석했다는 김종서, 정태춘, 박학기, 노찾사, 새하늘 새땅 등 많은 가수들이 양심수 석방에 한 목소리를 보태 주었고 특히 신해철 씨는 예정

에 없던 모금선전으로 모금함을 두둑하게 해주었다. 그 선전이 얼마나 재미있으면서도 고마웠는지.

그리고 김선명, 안학섭 선생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주는 감동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작년 8.15특사로 나온 뒤 열린 출소 환영식을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고려대에서 영상으로만 보았기에 더 뜻깊었던 것 같다.

이날 모두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끔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성오의 이야기였다.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재일동포 이현치 씨, 바로 그의 아들 성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성오는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에 의해서도 아니고 산부인과병원 아리따운 간호원 누나의 손길도 아닌 보안사 밀실의 어두컴컴한 바로 그곳에서 짐승같은 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어나야만 했다. 아빠가 소위 '간첩'이라는 굴레를 둘러쓴 덕분에... 80년대 초반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내외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필요성에서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현치 씨는 재일교포로서 그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고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성오가 보안사 밀실에서 태어나 이제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아빠는 꿈속 아니면 회썸엔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만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 아이가 여지껏 어떻게 자라왔을까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는 현실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리라. 비록 라디오극 형식이지만 성오가 감당해야했던 16년 세월의 아픔이 우리들의 가슴을 눈물로 가득 채우고야 말았다.

이제 3일 행사를 마감할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거둘 때이다.

아직 양심수 없는 나라로 가기 위해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

마지막 사회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나서 힘차게 외친다. 우용각 석방! 이현치 석방! 백태웅 석방! 장창호 석방! 석방! 석방! 외침 속에 어머니들은 입고 있던 수의를 벗어 하늘 높이 던지고... 그리고... 양심수 전원 석방의 외침이 명동성당을 메아리친다. 우리 모두의 함성소리로...

다시 부산으로 오는 무궁화 열차 안이다.

방송을 들으니 이번 8.15 석방 때 소위 국민 화합이라는 허울로 김영삼정부 들어 각종비리로 구속된 비리인사들을 전원 사면조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현치 씨등 공안수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멘트와 함께... 아마도 저들은 모르리라... 양심수 석방과 이 나라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 명동성당에서 못 하나 박고 플랭카드 하나 설치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가 비록 물방울 하나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물방울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물줄기를 만들고 파도가 되어 이 세상을 뒤덮을 건지를...

아마 이 글이 실릴 즈음이면 이현치 씨는 석방되었을 것이나 '또다른 성오'들이 있는 한 우리들의 양심수 없는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다.

'하루감옥체험'을 마치고 나오신 어느 분이 소감으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컷전을 올리며 다시 잠에 빠져든다.

"난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 같다. 이 정도로 많은 양심수들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다. 아마도 양심수들을 가두는 이 현실은 바로 나,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동성혜(‘꿈을 키우는 재능교육’ 기자)

멀리 해님은 내일을 약속하며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할 때 골목길 같이 놀던 친구들은 하나씩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집으로 들어간다. 처음엔 동그마니 홀로 남겨진 내 모습이 싫어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도 괜히 트집잡으며 먼저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도 지쳤는지 아무런 감정 없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나도 발걸 돌려 집으로 들어왔다.

텅빈 방안 한 구석엔 멋지게 웃고 있는 아빠 사진. 정말 저 사진속의 아저씨가 우리 아빠일까. 가끔씩 엄마 손잡고 아빠가 공부하고 계시다는 커다란 철문달린 집에 찾아가 잘 보이지도 않는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아빠 얼굴을 들여다 보았다. 험스한 얼굴에 비쩍 마른 몸매가 사진속의 거무스름한 얼굴에 단단해 보이든 아빠 모습이 아니다. 이젠 울음도 말랐는지 엄마와 아빠는 담담히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나에게 눈길을 돌리신다.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에서 난 항상 엄마에게 물어본다. “엄마! 내가 얼마나 커야 아빠가 공부마치고 집에 돌아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기다림이란 표현은 오히려 사치스런 감정일 수 있다. 아빠가 없는 텅빈 자리를 엄마와 힘겹게 메꾸어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기다림’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속에서나 나오는 감정이다.

양심수 가족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는 밤 - “아빠 보고 싶어요”라는 노래공연을 보았다. 목요일부터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으로

접하면서 순간 가슴 한구석을 덮쳐오는 답답함과 일상에 묻혀서 잊고 지냈던 일들에 대한 죄스러움이 스멀스멀 온 몸을 죄여왔다. 몇년째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이 행사에 꼭 참석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주위 몇 친구들과 함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여전히 명동성당은 상처받은 이들의 안식처요, 소외받는 이들의 희망터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6시가 채 안되어 양심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의 ‘하루감옥체험’ 행사 참가자들이 무대 주위를 돌고 있었다. 잠시후 신고한 집회를 가로막은 경찰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가협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다음 정식으로 노래공연이 시작되었다. 솔직히 이때까지도 나는 “아빠, 보고 싶어요”란 제목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문민정부라는 시대에 군사독재 때 불잡힌 사람들에게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만이 나를 분노케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행사중에 양심수 가족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 내가 느끼던 분노가 어찌면 현상만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심수들의 어려움 속에는 가족들의 고통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의 깊은 분노가 배어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 “아빠, 보고싶어요.”

요세 사회에서는 십대들의 문제가 불거져 나와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난리가 아니다. 십대들의 폭력, 흡연, 약물중독, 섹스 등등.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원인에 일률적으로 애기되는 것이 있다면 대화없는 가정, 무관심한 가정, 부모가 다 계시지 않는 불우한 환경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등 온전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보자. 과연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 래, 한발 양보해서 청소년 문제가 가정환경의 문제라고 보자.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정권이 이해(?)하는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토당토않은 법 하나의 잣대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긴 세월동안 한 생명을 가둬두어 처절히 그 가정을 파괴한 자들이 감히 가정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부모들의 따뜻한 사랑만이 어린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한 생명이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드는 노력은 경제적인 비용이나 시간으로 얘기될 수 없다. 또한 여기에는 일방적으로 한쪽만의 이데올로기가 좌우할 수는 없다. 편식 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어린이가 건강하듯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접할 때 더욱 풍요로운 인 품과 지성을 겸비한 미래의 세대가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양심수 가족 어린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더불어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연도중 이하나 어린이가 아버지 이화춘(9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7년형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수감중)씨에게 쓴 편지를 적어보겠다.



보고싶은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민가협 양심수 캠페인’ 행사에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계신 그런 곳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족이 헤어져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안 계신 동안 우리 집에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아기였던 막내 미르는 유치원생이 되었으며 두메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또한 아버지 대신 어머니께서 벌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난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되어야 공부가 다 끝나서 집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원은 두 동생 초등학교 입학식에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 소원대로 아버지가 공부를 빨리 끝내실 수는 없는지요.

아버지와 헤어진 뒤로 3번째 여름방학을 했습니다. 이젠 아버지와 함께 놀러가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고 동생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어머니도 많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제일 더운데 아버지가 계신 곳은 선풍기 또는 부채는 있는지요. 저희들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몇일 있다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그때까지 언제나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1996년 8월 10일

사랑하는 아빠의 딸 하나 올림



땀. 땀은 아름답다.

노동이 아름다운만큼 땀은 아름답다.

특히 '만인을 위해' 흘리는 땀일 때 그 땀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 양심수 석방을 위해 명동성당에서 땀을 쏟고 있는 회원을 만났다.

바로 장평기 회원(30세).

장 회원이 민가협과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감옥에서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양심수 후원회에서 보내주는 영치금과 책을 받아 보았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두만요.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주나 고마워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서울에 올라와 인사를 드리러 와 회원이 되었지요."

장 회원은 지난 93년 첫 구속에 이어, 올 1월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5월21일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두번 모두 국보법 적용에 의해서다.

장 회원의 고향은 전남 나주다. 나주서 문평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노동자가 되었다. 용접 일이나 프레스를 다루는 노동자 생활을 하며 형편없이 낮은 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왜그래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 회원은 사회 인식에 대한 시각을 넓혀가게 되었다.

그후 87년 광주로 내려가 노동자 생활을 했다.

"여기 보이죠? 한 다섯바늘 페멘 곳입니다. 고 강경대 학생이 타살 되었을 때 집회에 참가해 직격탄 파편을 맞아 찢어졌던 데예요. 실명 안된게 다행이죠. 그때는 정말 겁대가리 없었죠."

장 회원은 눈썹아래 수술자국을 보여주며 슬며시 웃는다.

"사무실에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무실 간사들은 다 체구가 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구가 작은 간사들이 쾅쾅대며 그 큰 앰프를 나르고 있더라구요."

장 회원이 처음 민가협의 행사와 인연을 가지게 된것은 작년 12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였다.

장 회원은 그 모습이 가여워(?) '도대체 남자 회원들이나 출소한 남자 양심수들은 다 어디 있길래, 여자들이 이 거친 일까지 다하느냐'며 허드렛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장 회원은 말이 많지 않다. 그런데도 그는 눈에 자꾸 띈다. 이번 행사때도 장 회원은 취직을 미루고 서울로 올라와 행사의 뒷치닥거리를 도맡았다. 모형 감옥을 만드는 일부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 치우기와 무대 정리등, 그리고 악명 높은 하루감옥의 교도관까지.

"처음엔 하기 싫었죠. 감옥,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교도관 역할을 교도관답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의 상황이 더 잘 알려지길 바라며 교도관 역할을 했습니다. 나더러 '악질'이라고들 했지만 사실 단 하루로 얼마만큼이나 인권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감옥생활을 실감나게 연출할 수나 있었겠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날. 나는 또 역시 런닝바람의 장 회원을 사무실에서 보았다. 행사의 뒷집 정리와, 언제나 다소 지저분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상자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고, 먼지 구덩이 속인 사무실 구석구석을 쓸어주며.

깨끗이 정리된 사무실을 한번 휘이 둘러보고, 다음 12월 행사에 또 올라오겠다며 씩씩하게 문을 나서는 장 회원에게 민가협의 한 어머니가 말씀하신다.

"가요? 아구우, 우리 아그가 고생만 하고 그냥 내려가서 어쩐다냐. 아주 가슴이 찢혀 죽겠네. 참말로 수고했소."

(편집자주:이번 캠페인 동안 한몸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준 회원들이 장 회원 말고도 참 많았다. 하루감옥의 교도관 역할을 기꺼이해준 윤창호, 김대영 회원. 무엇보다 캠페인 준비 기간부터 내내 자르고 붙이고 집나르는 등의 허드렛일을 두말없이 도맡아했던 수많은 회원들, 시간도 돈도 없이 준비한 캠페인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 보이지 않는데서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운' 회원들의 땀 때문이다. 이 지면을 빌려 말씀드리며 명동성당에서 '휴가'를 보낸 많은 회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름다운 사람, 부드러운 삶

조은하(27세·학생)

지루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주길 바랬다고나 할까, 산행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겐 여유로운 자기찾기 같은 것으로 얼마전부터 지속되어온 것이었다.

굳이 산행이 목적이었다면 혼자서라도 보다 일찍 성큼성큼 산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사람과의 접촉을 미끼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의도는 또한 아니었다. 근본적인 것이야 백선오빠의 따스한 가르침이 큰 몫을 한 셈이지만 나역시도 생각의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는 공감대가 새로운 모임으로 향하게 했을 것이다.

자라오면서 모순된 사회구조에 놀라워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고작해야 책상위에서 교양서적의 탐독정도로 혹은 얼핏설핏 주위들은 귀동냥으로만 얻어진 것들 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어떠한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질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고등학교 졸업이 곧바로 대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93년에야 본격적인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간의 갭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의 삶에 집착해온 소심증이 더 큰 이유였던것 같다. 누군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나또한 남아있는 생에 대한 아득함이나, 삶의 지루함으로 순간순간을 절망적으로 버텨 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또다른 나와 자주 만나게 되고 떠남 자체도 다시 일상이 되어버림에 놀라워하고 그렇게 돌아돌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요즘은 나름대로 내생활에 어느정도 여유를 줄 수 있기도 하다.

우주론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네 삶이 얼마나 찰라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짧은 생이기에 나와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웠으면 싶다. 바위처럼 단단한 여러 선생님들의 철학에 근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생님들의 그 강함이 부드러움으로 표출되듯이 나또한 부드러워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이 부드러움이 넘쳐나는 사회이길 진정 바란다.

이번 산행에서 나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부드러움을 느꼈다.

맛난 점심과 멋진 자기소개에서도 그랬고, 멋드러지게 뽑아대는 한소절씩의 노랫가락이 있는 빠방한 뒷풀이 예서도 그랬고,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그토록 신나고 유쾌하게 받아 들였던 산속에서의 얼마동안이 그랬고, 밤늦게 까지도 축축해진 옷을 걸치고 철컹이는 등산화를 신고도 만족할 수 있었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따스함속에서도 그랬다.

모두 너무도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아마도 그건 여러 선생님의 부드럽고 포근한 "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런일이 있었어요

- 1 -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대 토론회'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등 14개 단체 주최로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 2 - 혜명양로원에 계신 임병호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 민가협 회원들, 학생들 무더기 연행에 경찰청, 내무부, 국회, 정당 등으로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 4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려 '8월 양심수 석방 캠페인' 등을 협의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양정호(28년 복역)님 조카 양승혜 씨의 편지낭독과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Joint. olossantos씨 연설 등이 이어졌습니다. 노래패 꽃다지가 함께 좋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 한총련 대표로 95년 평양을 다녀온 정민주, 이해정씨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은 '74 공동성명' 25주년을 맞아 '통일위원 조계사 - 명동 걷기대회'를 열었습니다.
- 5 - '표현의 자유 쟁취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려 민예총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했습니다.
- 박일룡 경찰청장은 '경찰 중립화' 주장에 대한 '중립화 반대' 지침서신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 11 - '후원회소식' 57호를 발송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대량 구속사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홍기원 씨 부인, 진재선(서울 대 부총학생회장)씨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7월 운영위원회가 열려 6월 사업, 재정보고와 7월 사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12 - 서울지역 형사9단독(판사 유원석)은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13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최(주관 서울연합,성남연합,인천연합)로 열린 "통일인사 석방촉구와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을 진행하려다 경찰의 불법 방해로 제지당한채 50여명 강제 연행을 당했습니다.
- 14 - 신한국당 서훈 의원은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은 당시 독재정권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빚어낸 조작사건으로써 그들의 복권을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 16 - 민가협 회원의 날이었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96 특별계획으로 진행되는 민가협 회원들의 종합검진과 관련, 검진받아야할 병원과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 민가협 회원들은 한청협 부의장 구속과 관련하여 농성중인 한청협과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지원을 위한 일본 전국회의(공동대표 요시마쓰 시케루 목사) 회원들은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 일본 국회의원 130명이 서명한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을 요청한 문건을 접수시켰습니다.
- 18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려 무죄선고를 받은 박충렬 씨, 이영태(21세기 진보학생연합 사건 관련), 애청 구속자 가족의 사례발표 등이 있었습니다.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애청 회원들을 격려방문했습니다.
- 19 - 동양 여운형 선생 49주기 추모모임이 수유리 묘소에서 열렸습니다.
-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저지를 위한 천주교대책위'(위원장 김승훈신부)는 성명을 내어 최근 무차별 구속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송진환(92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3명은 최근 공안탄압 중지를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10일동안의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 21 - 양심수후원회 7월 산행이 모두 32명이 함께해 도봉동 입구에서 출발, 마당바위를 거쳐 만장봉을 오르던 중 큰 비를 만나 만장봉 아래에서 내려왔습니다.
- 22 - 후원회소식 58호 편집회의를 했습니다.
- 말 8월호를 교도소로 발송했습니다.
- 안기부는 무하마드 칸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씨가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세)씨로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안기부는 22일동안 변호사 접견마저 불허시킨 채 밀실수사를 진행했습니다.
- 24 - 영등포구치소로 김병권, 이천재(범민련 사건) 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 25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려 한청협 조직부장이 이승환 씨 사례를, 윤혜경 장가협 회장이 일본 국회의원들의 재일동포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에 대해 말씀하셨고 꽃다지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8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강희남 목사님 등 범민련 간부 9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 서울고법 특별8부는 전교조에서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보처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26 -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시위중 직격 최루탄을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29 - 시국양심수 168명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30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는 한총련 대표로 평양을 다녀온 정민주 이혜정 학생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 31 - 음성꽃동네로 유한욱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이 좋아 보였고 푸른영상과 이미민, 임진아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 14분의 무연고 출소 장기수해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 성금을 김태룡(18년째 복역), 서경원(전 국회의원)씨 자녀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북녘동포에게 겨레의 정을 보냅니다

큰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녘동포 돕기 운동'이 이달에도 이어집니다.
가뭄이나 어려운 터에 지난 여름 큰 비로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보낼 곳: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

국가보안법 위반

7/2 - 조철진(전남대 . 남총련 자주대오)

양귀성(서울대 . 노나매기)

이주형(경북대 . 대경총련 의장)

김정훈(연세대 . 전국학생연대 2기 의장)

박정훈(순천대졸 . 남총련 투신국)

김정두(성균관대 . 전국학생연대 3기 의장)

여성오(서울대 . 전학투련 의장)

김태형(조선대 . 학내시위 관련)

7/6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최성진(중앙대)

이종석(외국어대)

한광웅(서울교육대)

최해범 박성원 류상원(이상 한신대)

박범용 송상교 권경원 홍 선 이철원(이상 서울대)

이기진(상명여대)

차정애(한성대)

김연국(연세대)

7/10 - 이은순(경산대 총여 부회장)

티셔츠에 새긴 함경남도 개성시에 있는

‘송도원 대학교’ 이름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

7/11 - 윤도현(강원대 . 강원총련의장)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이재용(96 의장) 이영진(10지구청년회)

박경수(북부공동체) 전경희(사무국장)

홍덕희(95 사무국장)

유영재(부의장) 김상진(가락동 성당)

양준석(93 의장)

7/13 - 이원우(군인, 제주대, 새오름 사건)

7/14 - 이승환(한정협 부의장)

7/15 - 김재우(호남대, 조통위장)

김재주(호남대)

7/24 - 김현호(동아대 조국통일위원장)

7/25 - 김수현(충청총련 의장)

7/27 - 상지대 ‘자주대오’ 사건

여준성 이문수 정재호(이상 군인)

김인봉 최혜선(이상 학생)

장용길(내일신문 기자)

7/29 - 조성우(민족회의)

집시법 위반

7/1 - 김만주 박희정(경북대, 학내시위 관련)

7/12 - 김만영(목포대, 시위관련)

7/14 - 임승준(강원대, 의장 연행항의시위)

윤용배(성남연합)

7/31 - 이 강 김형진(이상 고려대)

금호8지구 빈민활동 관련

노동자 구속자(업무방해 혐의)

7/6 - 김창한(만도기계 노조위원장)

복진길(만도기계 수석부위원장)

김기성(만도기계 평택지부장)

'96 여름 수련회

작년 이맘때, 온나라를 뒤흔들었던
여름 수련회의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건 늘 주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는 후원회원 여러분!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96 여름 수련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래간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회원들의 반가운 얼굴을 그리며,
힘차게 달려오세요~

언 제 · 1996. 8. 24 (토) - 25 (일) <1박2일>
어 디 로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동양일보 연수원
모이는 곳 · 잠실 롯데백화점 앞
롯데 마스코트 곰돌이(너구리 로티, 로리라고도
불림) 상 아래
출발시간 · 8.24 (토) 오후 3시 30분
준 비 물 · 회비 25,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긴팔 옷,
손전등, 모자, 얇은 이불

회원소식

- 7일, 청소년 단체 '희망' 발족 1년 기념 모임이 한양대에서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9일, 지난 89년 구속되어 7년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방양균(서경원의원 비서관)씨가 만기출소했습니다. 전주교도소 앞에서는 50여명이 모여 환영식을 갖았으며 민가협 회원들은 전주교도소 양심수(김성만, 박영희) 면회를 했습니다.
- 9일, 이대식 선생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13일, 안학섭 선생님께서 가족세공 견습공 첫월급을 타셔서 민가협 일꾼들에게 점심을 사주셨어요.
- 22일, 박석률(범민련 사건) 씨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 28일, 감리교 동대문교회 유정비 전도사님을 비롯한 8명의 성도들이 낙성대를 방문해 큰 성금을 주셨습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현 의원(국민회의)이 양심수 후원에 써달라며 큰 성금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정모 부회장이 큰 성금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이덕우 변호사님이 미국으로 법률연수를 떠나셨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 노중선(평화통일연구원 원장) 회원이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을 엮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책은 1948년부터 1995년까지 남북당국과 민간분야의 모든 통일관계 자료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 김대영 회원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인천 성문감리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예전을 연답니다. 많은 관심바라며 문의처는 032-867-6743.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김현정 (광진구 중곡4동)	조은하 (은평구 갈현동)	박채영 (전남 고흥군 소록1번지)	박희숙 (관악구 봉천11동)
정우경 (동대문구 용두2동)	조호천 (광명시 하안동)	박귀영 (노원구 상계9동)	김윤구 (용산구 동작동)
조은영 (금천구 시흥본동)	이영자 (동작구 사당동)	소소연 (원주시 일산동)	최수나 (전남 여천시)
조성임 (군포시 금정동)	권동호 (구로구 개봉1동 우리교회)	기신옥 (고양시 화정동)	유수남 (충북 청주시 물량동)
신영순 (대전시 대화동)	김홍대 (양천구 목3동)	정경화 (중구 정동)	김대영 안향숙(인천시 주안동)
김정화 (동작구 노량진2동)	최중수 (전주시 금암성당)	박은주 (광주시 월산4동)	권오영(충주 을지로2가)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4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을 뒤로하고 마침내 세계 1위, 2위, 3위 최장기수가 세상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옥문은 다시 굳게 잠기고 저 십오척 담장안에는 세계최장기수인 '또 다른 김선명'들과 400여 양심수가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울리며 그렇게 갇혀있습니다.

3. 40년 동안 녹슬어 있는 빗장은 우리들 양심의 녹슬음 아닐까요.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전두환, 노태우를 기어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둔 양심수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은 잘못된 역사에 의해 지금껏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람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넘도록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있던 장기수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무연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머물 곳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기타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러 형태의 후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